

코로나 이전 대비 성장한 교회, 15%

우리 연구소에서는 그동안 한국교회 주요 지표들을 추적해서 발표해 왔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또다시 전국의 교회출석자들과 담임목사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조사하였는데 이번 호에서 그 결과를 발표한다. 두 집단의 주요 결과를 이전 추적조사 결과들과 비교하여 보고서에 실었다.

주목할 결과로는 코로나 이전 대비 주일 성인 현장예배 회복률이 100%가 넘는 교회가 15%였는데, 이들 교회의 특성을 보니 중대형교회일수록 또 소그룹이 잘 운영될수록 높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이전 대비 성장하거나 사역이 회복된 교회들의 특성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변수 영향력이 두드러지는데 교회 규모와 소그룹 활성화 여부였다. 즉 중대형교회에서 회복도가 소형 교회보다 더 컸고,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더 컸다. 한국교회, 특히 소형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모쪼록 이번 보고서가 개교회에서 올해 목회 방향을 잡는데 의미있는 길잡이가 되길 희망한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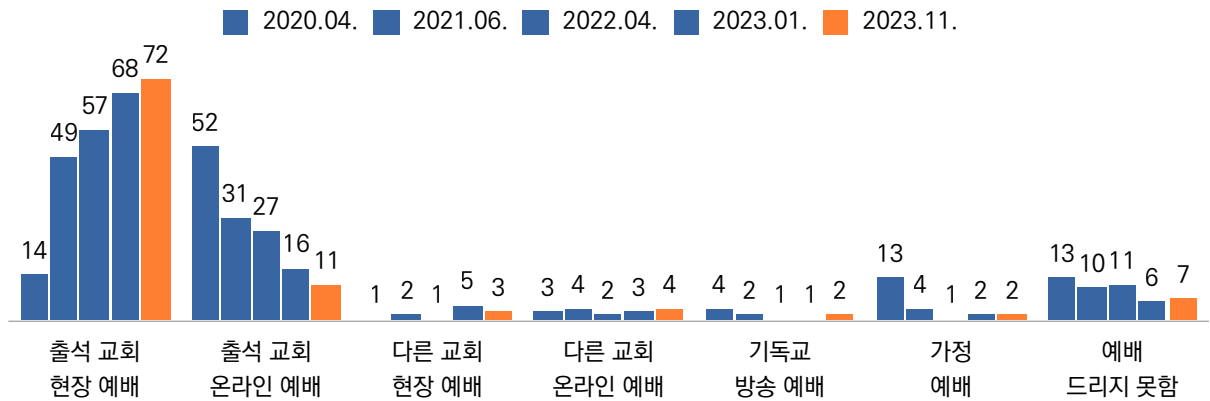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개신교인; 예배 행태] 주일 현장 예배 참석률, 72%까지 늘어!

-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초부터 현 시점 사이 개신교들의 교회 주일예배 형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 조사에서는 '출석교회 주일 현장 예배'가 14%에 불과했으나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장 최근 조사인 2023년 11월엔 72%까지 현장 예배 참석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출석교회 온라인 예배'는 2020년 52%에 달했으나 현 시점(2023.11)은 11%로 크게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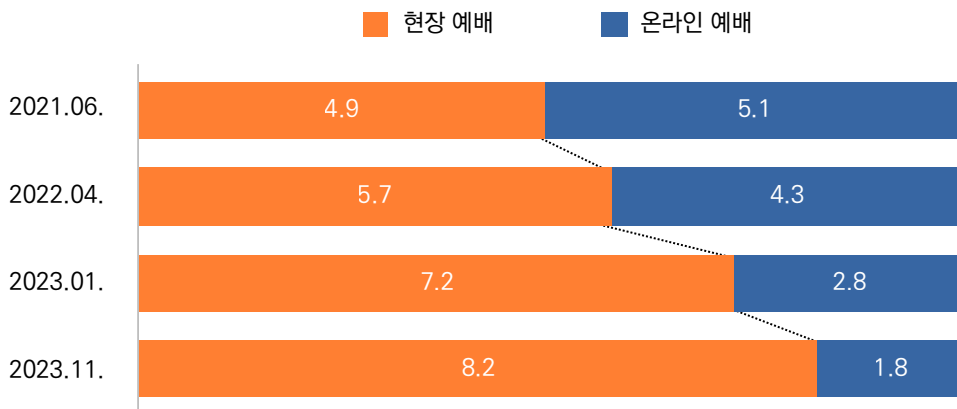
[그림] 지난 주일 드린 예배 형태 (교회 출석 개신교인, %)



주일 현장 예배 비중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교회 출석자에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합을 10으로 했을 때, 2023년 11월 기준, 주일 현장 예배 8.2회, 온라인 예배 1.8회였다. 주일예배를 5번 드린다고 하면 그중 1번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셈이다.
-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1년은 온라인 예배 비율이 현장 예배와 비슷했으나 2022년부터 현장 예배 비율이 다시 높아져 2023년부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간 비율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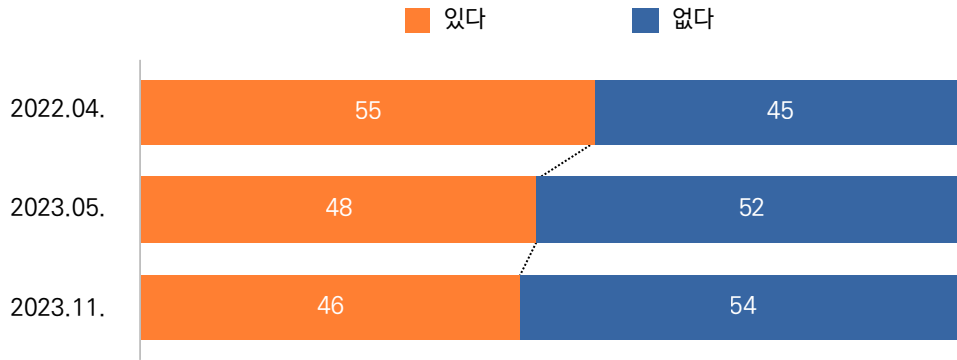
[그림] 현장 예배 vs 온라인 예배 비율 (교회 출석 개신교인, 주일예배 10회 기준, 회)



타 교회 온라인 예배 경험, 40%대 중반에서 멈춰!

- 이번에는 교회 출석자에게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2년 55%, 2023년(5월) 48%, 2023년(11월) 46%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교인 2명 중 1명 가까이 타 교회 온라인 예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전체적으로 타 교회 온라인 예배 경험률이 40%대 중반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드린 경험 (교회 출석 개신교인, 지난 1달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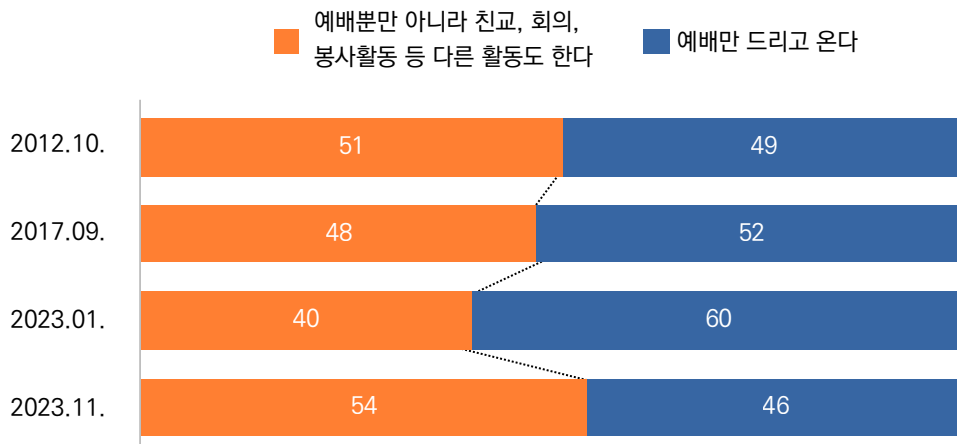


02

[개신교인; 예배 외 교회 활동] 주일날 예배 외 교회 활동,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 회복!

- 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 외 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예배뿐 아니라 친교, 회의, 봉사활동 등 다른 활동도 한다'는 응답률은 2012년부터 2023년 초까지 감소하다가 2023년 말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1월 기준 교인 절반 이상이(54%) 예배 외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시금 예배 외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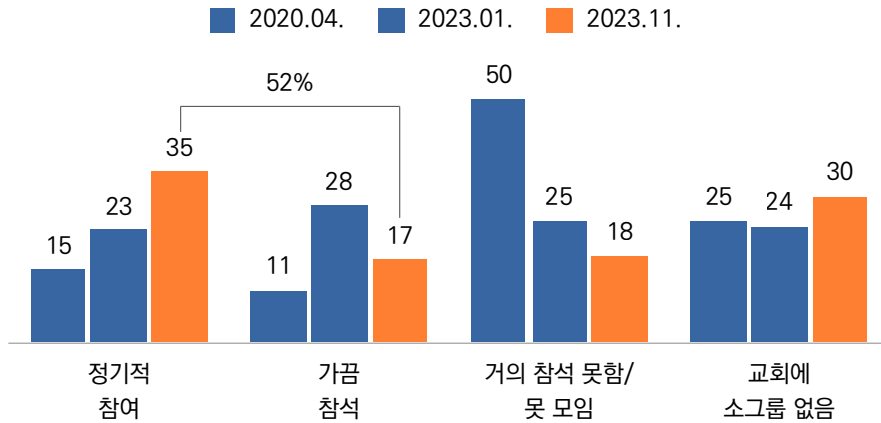
[그림] 주일, 예배 외 활동 여부 (교회 출석 개신교인, %)



소그룹 정기적 참석자 1년 사이 크게 늘어

- 이번에는 소그룹 참석 여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2023년 11월 기준으로 '정기적+가끔 참석자'가 52%로 교인 절반 정도는 소그룹 활동을 하고 있었다.
- 소그룹 '정기적 참석'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2020년 15%로 위축돼 있다가 2023년 11월 35%로 크게 늘어났다.

[그림] 신앙 소그룹 참석 여부 (교회 출석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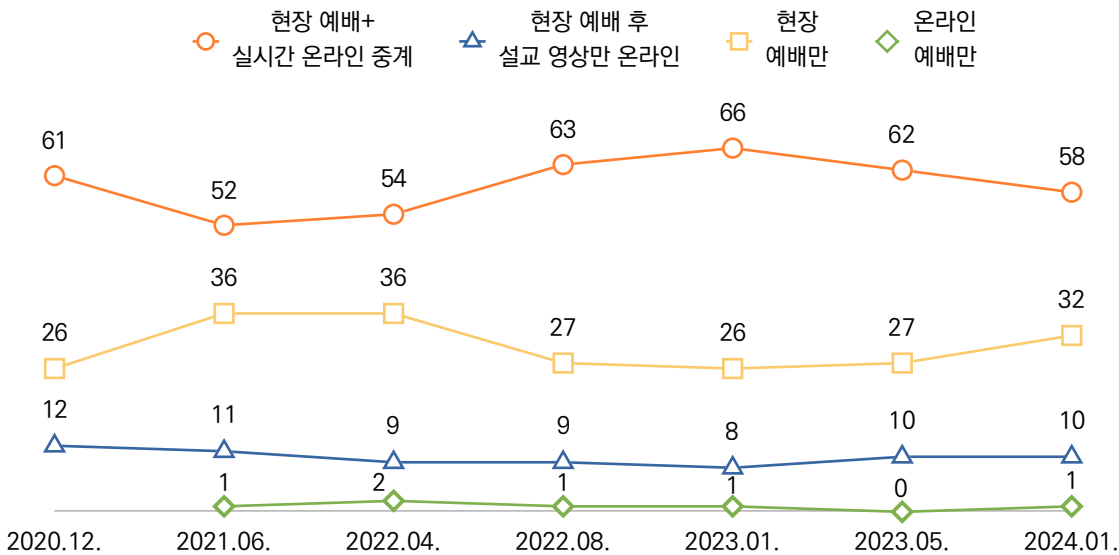
03

[목회자; 주일예배 형태]

2023년 이후 주일예배 실시간 중계, 하락세로 전환!

-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시무교회의 주일예배 방식을 물었다. 그 결과, 2024년 1월 기준 '현장 예배+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병행하는 교회가 10곳 중 6곳(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시간 온라인 중계 비율은 2023년 1월 정점을 찍은 후 조금씩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현장 예배만 드리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주일예배 방식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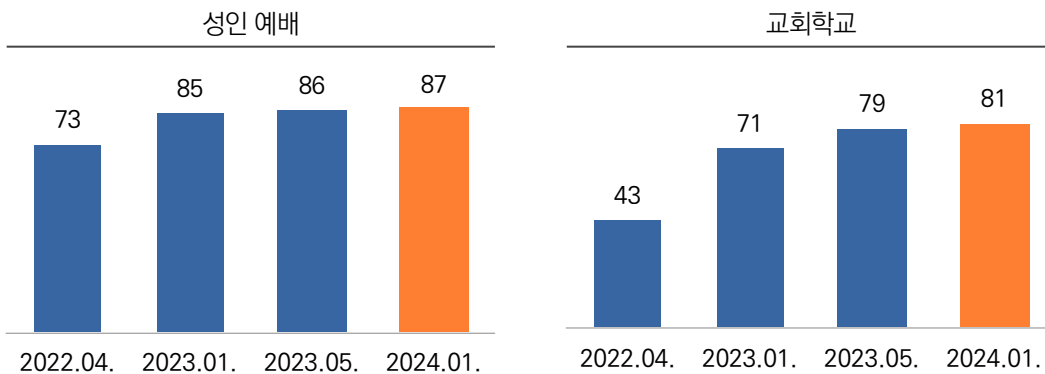
04

[목회자; 코로나 이후 사역 회복도]

성인 예배 회복률, 작년 1월 이후 85~87% 선에서 멈춰 있어

- 코로나 이전 교인들의 현장 예배 참석률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회복도가 어느 정도 됐을까? 목회자를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성인 예배의 경우 2024년 기준 87%, 교회학교는 81%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제 삶이 일상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예배의 경우 작년 1월 이후 85~87% 선에서 멈추고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교회학교의 경우 성인 예배보다 다소 낮은 회복률을 보였는데, 성인 예배와 마찬가지로 작년 5월 이후 더 이상 회복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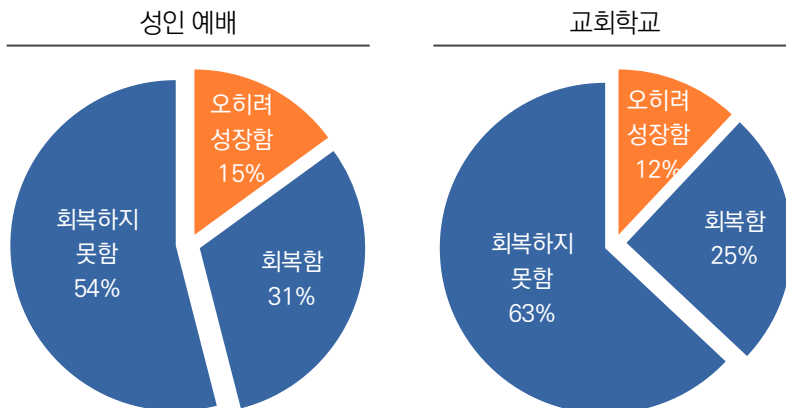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장 예배 출석률 (담임목사, 평균 %)



코로나 이전 대비 성장한 교회(성인 예배), 15%

- 주일 현장 예배 회복과 관련,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지 못한 교회, 회복한 교회, 오히려 성장한 교회로 구분해서 살펴 보면, 성인 예배의 경우, '회복하지 못한 교회' 54%, '회복한 교회' 31%, '성장한 교회' 15%로 각각 나타났다. 코로나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한 교회는 15%로 6개 교회 중 1개 교회인 셈이다.
- 한편 교회학교 현장예배의 경우 '회복하지 못한 교회' 63%, '회복한 교회' 25%, '오히려 성장한 교회' 12%로 장년 보다는 회복도가 더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주일 현장 예배 회복률 (담임목사, %)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과제 발견을 위한 조사', 2024.01. (전국 담임목사 526명, 2024.01.05.~01.15.)

코로나 이전 대비 성장한 교회 → 중대형 교회, 소그룹 잘 되는 교회!

- 코로나 이전 대비 성인 예배와 교회학교 현장 회복률이 현재 100%가 넘는 교회, 즉 코로나 이전보다 더 성장한 교회의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성인 예배와 교회학교 모두 '교회 규모'가 클수록, '소그룹 운영'이 잘 될수록, '목회자의 현 교회 시무 기간'이 짧은 교회일수록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회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교회 특성별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장 예배 출석률 100% 초과한 교회 비율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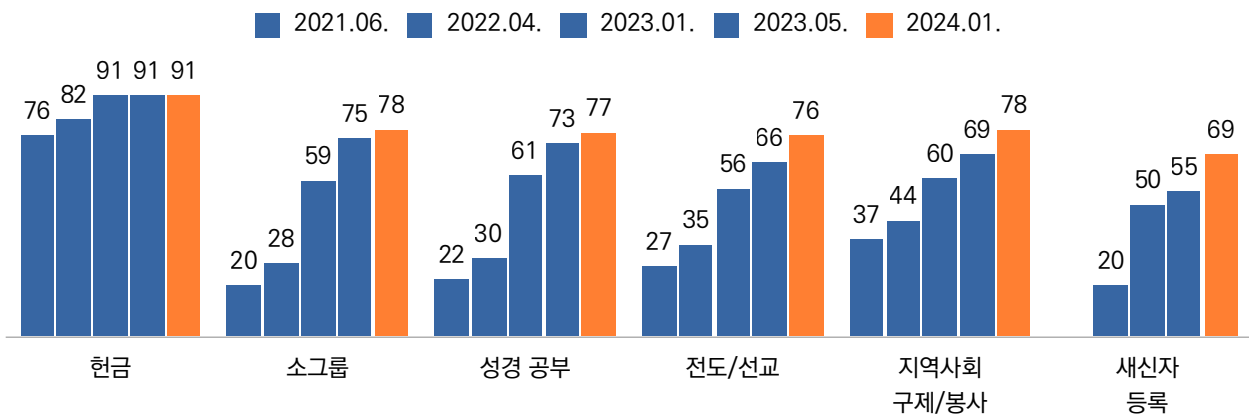
		성인 예배	교회학교
전체		15	12
교인 수	30명 미만	7	6
	30~99명	13	9
	100~499명	23	20
	500명 이상	26	24
소그룹 운영 수준	잘 되고 있다	22	19
	잘되지 않는다	9	6
현 교회 시무 기간	5년 이하	21	20
	6~10년 이하	16	10
	11~15년 이하	10	9
	16년 이상	9	6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과제 발견을 위한 조사', 2024.01. (전국 담임목사 526명, 2024.01.05.~01.15.)

교회의 주요 사역 회복도, 아직 80%를 넘지 못하고 있어!

- 코로나 이전 사역과 비교했을 때 교회 소그룹, 성경공부, 전도/선교 등 사역은 현재 어느 정도 회복됐을까? 코로나 이전 사역을 100으로 가정하고 회복률을 살펴본 결과, 2024년 1월 기준 '헌금'이 평균 91% 수준으로 작년 1월 이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그룹', '지역사회 구제/봉사', '성경 공부', '전도/선교'는 70% 중후반대 수준으로 작년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80%를 넘지 못했고, 가장 회복세가 더딘 것은 '새신자 등록'으로 평균 69%였다.
- 전체적으로 2023년 5월 대비 회복도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교인들의 신앙수준 하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사역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역 회복률 (담임목사, 평균 %)



*2024.01. 조사는 '새신자 등록' 보기 항목 없음

교회의 주요 사역 회복 key, ‘소그룹 잘 운영되는 것!’

- 이번에는 코로나 이전 대비 헌금, 소그룹 등 주요 사역에서 회복도가 100%를 넘는 교회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헌금’의 경우 100%를 초과하는 교회가 평균 20%였고, ‘소그룹’, ‘성경 공부’, ‘전도/선교’, ‘지역사회 구제/봉사’가 각각 11%, ‘새신자 등록’은 17%로 조사됐다.
- 코로나 이전보다 사역 측면에서 더 성장하고 나아졌다고 응답한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헌금, 소그룹, 성경 공부, 전도/선교 등 사역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모든 사역 영역에서의 공통점은 ‘소그룹 운영이 잘 된다’는 점이었다.

[표] 교회 특성별 코로나19 이전 대비 주요 사역 회복률 100% 초과한 교회 비율 (담임목사, %)

		헌금	소그룹	성경 공부	전도/선교	지역사회 구제/봉사	새신자 등록
전체		20	11	11	11	11	17
교인수	30명 미만	10	3	6	6	5	6
	30~99명	21	11	10	11	12	17
	100~499명	31	18	17	15	17	28
	500명 이상	24	15	17	15	15	33
소그룹 운영 수준	잘 되고 있다	30	21	20	16	17	26
	잘되지 않는다	12	2	5	6	7	10
현 교회 시무 기간	5년 이하	27	12	14	14	19	29
	6~10년 이하	18	14	12	13	10	15
	11~15년 이하	17	9	13	5	6	10
	16년 이상	16	5	5	8	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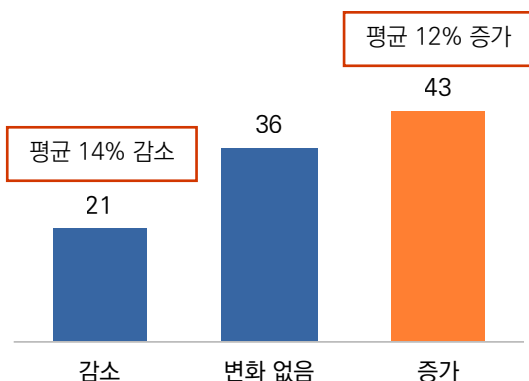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과제 발견을 위한 조사’, 2024.01. (전국 담임목사 526명, 2024.01.05.~01.15.)

05

[목회자; 코로나 이후 교인 수 변화] 2023년, 전년대비 교인 수 증가 교회가 감소 교회보다 많아!

- 2022년 대비 2023년 출석 교인 수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묻은 결과(2024년 1월 조사), ‘증가’ 43%, ‘변화 없음’ 36%, ‘감소’ 21%로 응답해 교회 10곳 중 4곳은 2022년 대비 2023년 교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크게 충격을 받은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한편 교인 수 증감률은 ‘교인이 감소한 교회’의 경우 ‘평균 -14%’, ‘증가한 교회’의 경우 ‘평균 +12%’였다.

[그림] 2022년 대비 2023년 출석 교인 증감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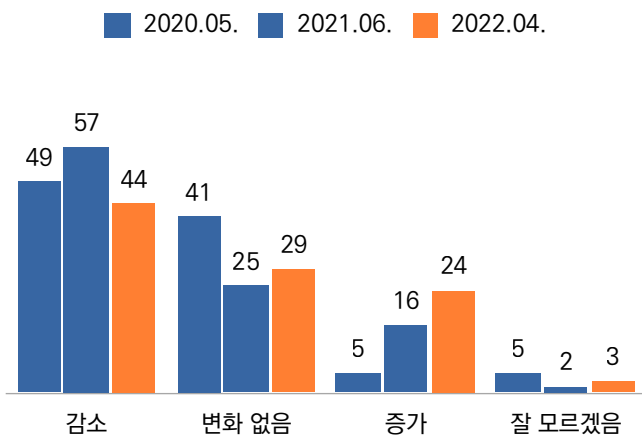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과제 발견을 위한 조사’, 2024.01. (전국 담임목사 526명, 2024.01.05.~0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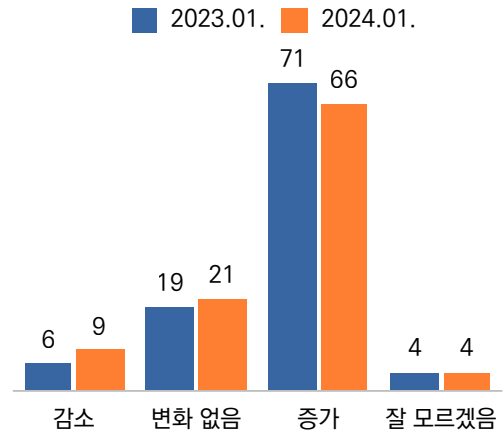
담임목사, '2024년 교인 수 더 증가할 것' 66%

- 아래 왼쪽 그래프는 코로나 기간 중 전국의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교인 수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추적해서 묻은 결과인데, 코로나 발생 후 2022년까지만 해도 목회자들은 매우 비관적으로 미래를 전망하다가 2023년 들어서면서 낙관적으로 변화하였다.
- '전년 대비 올해 출석 교인 수 예상'에 대해 2024년 1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담임목사 3명 중 2명(66%)은 증가할 것 같다고 응답해 교회 부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그림]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 교인 예상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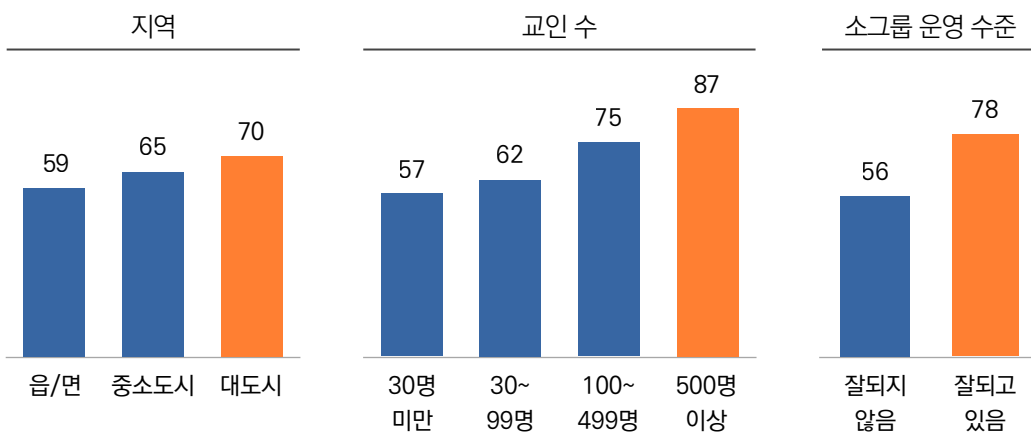
[그림] 전년 대비 올해 출석 교인 예상 (담임목사, %)



교인 수 증가 인식, 교회 규모별로 큰 차이 보여

- 향후 출석 교인 수가 '증가할 것 같다'고 응답한 교회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대도시일수록, 교인 수가 많은 교회일수록, 소그룹 운영이 잘되고 있는 교회일수록 '교인 수 증가 예상'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교회 규모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교회 특성별 '향후 출석 교인수 증가 예상' 응답 비율 (담임목사, %)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과제 발견을 위한 조사', 2024.01. (전국 담임목사 526명, 2024.01.05.~0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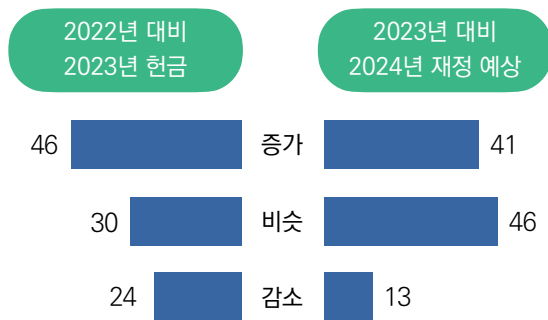
06

[목회자; 헌금과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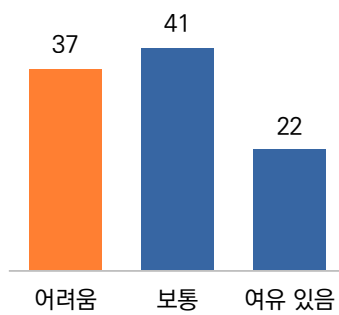
올해 재정, 전년 대비 비슷하거나 증가 예상 87%!

- 교회의 헌금 변화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2022년 대비 2023년 헌금 증감 여부', '2024년 재정 예상'을 각각 물었다. 우선 2023년의 헌금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46%)로 가장 많았고, 2024년 재정 예상은 '증가'가 41%로 '비슷(46%)'까지 포함하면 교회 10곳 중 9곳 가까이(87%)가 전년보다 올해 재정이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었다.
- 교회의 현재 재정적 상태를 묻은 결과, '어려움' 37%, '보통' 41%, '여유 있음' 2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여유있는 교회보다는 어려운 교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헌금 변화 (담임목사, %)



[그림] 현재 교회의 재정 상태*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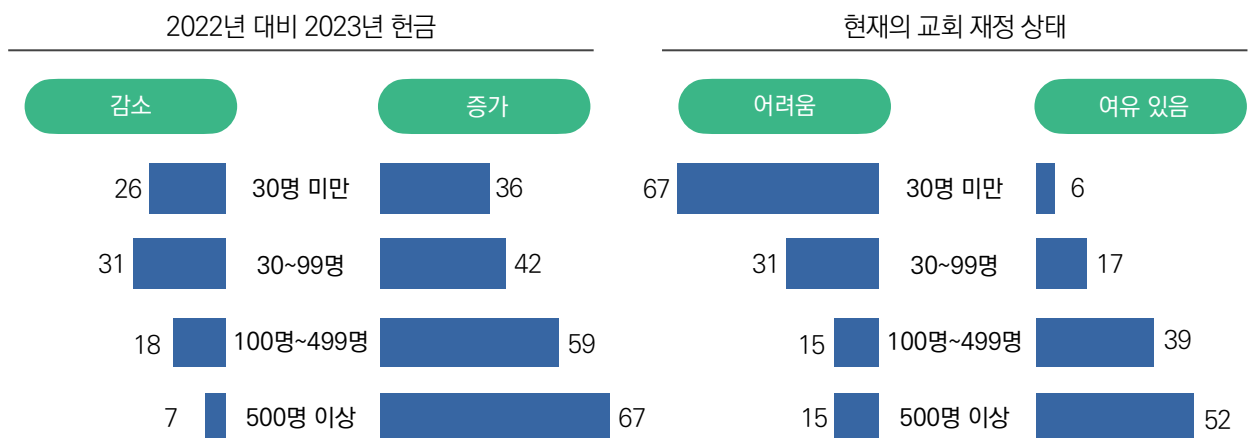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과제 발견을 위한 조사', 2024.01. (전국 담임목사 526명, 2024.01.05.~01.15.)
*5점 척도

교회 헌금과 재정 상태, 양극화 두드러져!

- 교회 규모별로 헌금 증감과 재정 상태를 살펴본 결과, 중대형교회와 소형교회 간 큰 재정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23년 헌금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응답은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져 '500명 이상 교회'의 경우 3곳 중 2곳 (67%)이 헌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교회의 재정적 상태가 어렵다'는 응답은 30명 미만 초소형 교회 67%로 100명 이상 교회(15%) 대비 4배 이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교회 규모별 헌금 증감 및 재정 상태 (담임목사, %)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과제 발견을 위한 조사', 2024.01. (전국 담임목사 526명, 2024.01.05.~0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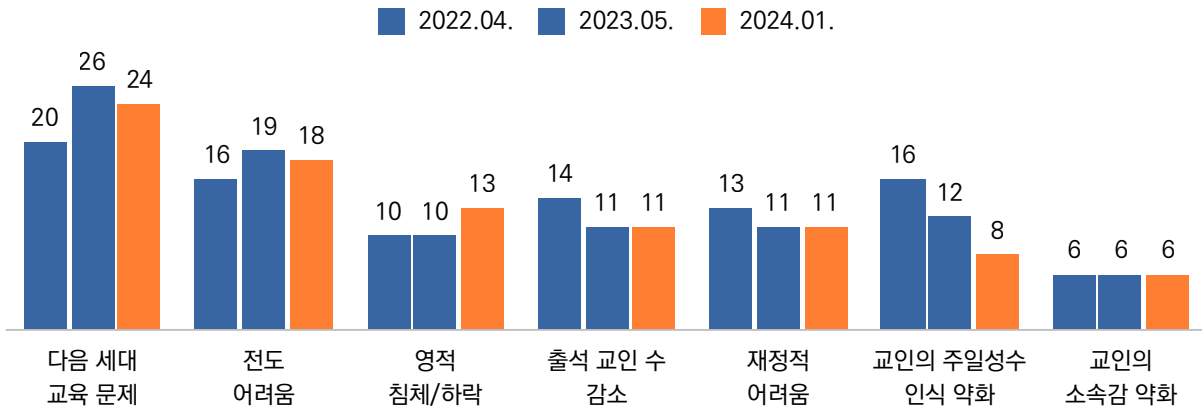
07

[목회자; 목회 계획]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 '다음 세대 교육' 3년 연속 1위!

-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현재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결과, '다음 세대 교육 문제'를 24%로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전도 어려움' 18%, '영적 침체/하락' 13% 등의 순이었다.
- 2022년 이후 3번의 조사에서 '다음 세대 교육 문제'는 매년 1순위를 차지하며 담임목사와 교회의 주요 과제이자 고민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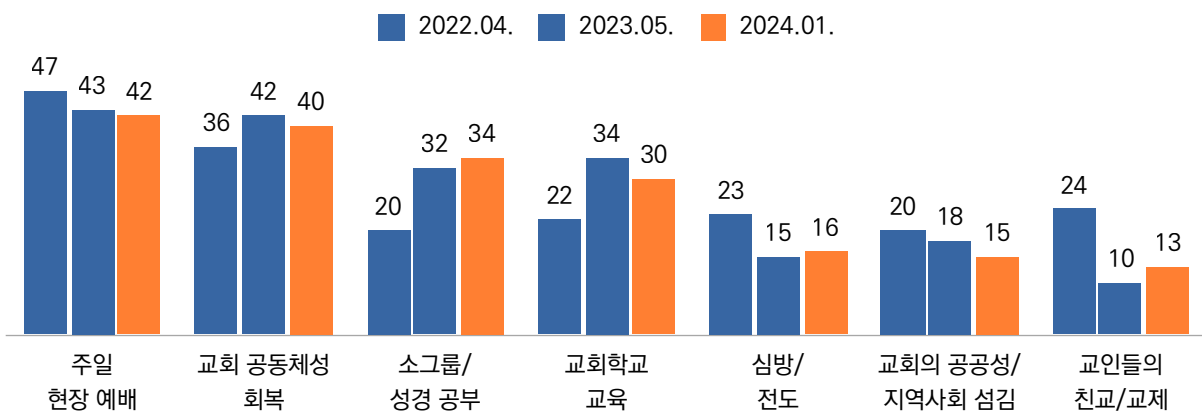
[그림]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 (담임목사, 상위 7위, %)



향후 목회, '소그룹/성경 공부에 중점 두겠다' 높아지는 추세!

- 향후 목회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해 묻은 결과, '주일 현장 예배'와 '교회 공동체성 회복'에 두겠다는 응답이 3번의 조사 결과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소그룹/성경공부'의 경우 2022년 20%에서 2023년 32%로 급증한 이후 이번 2024년에는 34%로 더 높아졌는데, 목회자가 생각하는 소그룹 목회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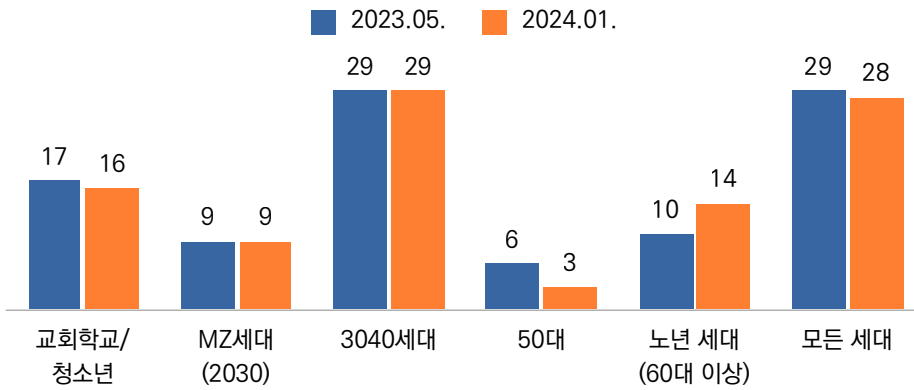
[그림] 향후 목회 중점 방향 (담임목사, 1+2순위, 상위 7위, %)



향후 가장 중요한 목회 타깃, 올해도 '3040세대'가 1위!

- 앞으로 목회에 있어 더 중점을 뒀야 할 세대가 누구인지 담임목사에게 물었다. 그 결과, 2023년과 2024년 두 조사 모두 '3040세대'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교회학교/청소년', '노년 세대', 'MZ세대(2030)' 등의 순이었다.(모든 세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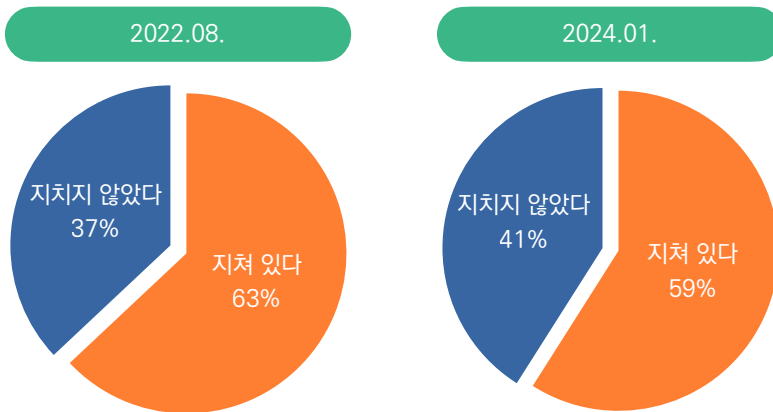
[그림] 향후 목회 중점 세대 (담임목사, %)



담임목사 10명 중 6명, '현재 영적으로 지쳐있다'

- 담임목사의 현재 영적 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쳐 있다' 59%, '지치지 않았다' 41%로 목회자 10명 중 6명은 현재 영적으로 고갈되고 지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쳐 있다'는 응답은 2년 전 조사(2022.08)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그림] 목회자의 영적 상태* (담임목사)



*4점 척도

※ 출처

<개신교인 조사>

- 2023.11.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과제 발견을 위한 조사', 2023.12.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1,000명, 2023.11.07.~11.15.)
- 2023.05.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2023.06.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51명, 2023.05.12.~05.31.)
- 2023.01.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04.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768명, 2023.01.09.~01.16.)
- 2022.04. : 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2022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 2022.05.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1,197명, 2023.04.15.~04.25.)
- 2021.06. : 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2021.07.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755명, 2021.06.17.~06.28.)
- 2020.12. : 예장합동교단,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2020.12.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794명, 2020.11.14.~11.23.)
- 2020.04.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2020.04.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755명, 2020.04.02.~04.06.)
- 2017.09.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18.07.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768명, 2017.09.22.~10.20.)
- 2012.10.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 조사', 2013.01. (전국 만18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895명, 2012.10.08.~11.08.)

<목회자 조사>

- 2024.01.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과제 발견을 위한 조사', 2024.01. (전국 담임목사 526명, 2024.01.05.~01.15.)
- 2023.05.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2023.06. (전국 담임목사 500명, 2023.05.12.~05.31.)
- 2022.08. : 한국교회지도자센터, '목회환경과 목회 실태 조사', 2023.09. (전국 담임목사 434명, 2022.08.17.~08.23.)
- 2023.01.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2023.04. (전국 담임목사 802명, 2023.01.31.~02.12.)
- 2022.04. : 예장통합/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2022.05. (전국 담임목사 981명, 2022.04.27.~04.30.)
- 2021.06. : 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2021.08. (전국 담임목사 891명, 2021.06.18.~06.30.)
- 2020.12. : 예장합동,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2020.12. (전국 담임목사 및 부목사 총 600명, 2020.11.22.~12.03.)
- 2020.05. : 예장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소속 목회자 대상 포스트 코로나19 설문 조사, 2020.06.08 (전국 담임목사 1135명, 2020.05.28.~06.01.)

그동안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코로나 시작 시점부터 꾸준히 교회 출석자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예배’와 ‘교회 활동’, ‘사역’에 관한 조사를 추적해 왔으며 엔데믹 선포(2023년 6월) 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 이를 동일한 항목으로 조사하여 그 추적 결과를 이번 넘버즈에 실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삶이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예배’이다.

담임목사가 응답한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장 예배 출석률’은 성인 예배가 87%, 교회학교가 81%로 나타났다. 더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 엔데믹을 앞두고 현장 예배가 정상화됐던 2023년 1월 조사에서 파악한 성인 예배 출석률(85%)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코로나 이전 대비 주요 사역(헌금, 소그룹, 성경 공부, 전도/선교, 지역사회 봉사, 새신자 등록) 회복률도 헌금을 제외하고 모두 80%를 넘지 못했다. 교인의 예배 행태도 아직 현장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일 예배 10번 중 1.8회는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경험도 46%로 나타나 코로나가 활성화시킨 온라인 예배가 아직도 일상에 남아 있었다. 예배 회복 정체가 장기화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결단과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회 회복에 관한 긍정적 조짐도 나타났는데 바로 ‘예배 외 활동의 활성화’이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7년에 조사한 교인의 ‘예배 외 교회 활동 참여율’은 48%였는데, 코로나 중에는 40%대로 떨어졌다가 이번 조사에서 54%까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활동이 더 활발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앙 소그룹 참석 비율은 52%로 코로나 시작 시기 조사(2020년 4월, 26%)보다 2배나 증가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단단해진 교인 간의 결속은 목회자의 기대에서도 드러나는데, 담임목사 3명 중 2명(66%)은 올해 출석 교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코로나의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시기(2020년 5월)에 조사한 ‘코로나 종식 후 교인 증가 예상’ 비율 5%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목회자의 긍정적인 기대를 결과로 만들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소그룹’이다. 조사에 응답한 담임목사에게 소그룹 운영 수준을 물어 ‘잘되고 있는’ 교회와 ‘잘되지 않은’ 교회의 결과를 비교하니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소그룹이 잘되고 있는 교회의 경우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장 예배 출석과 주요 사역이 오히려 더 성장한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올해 교인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78%로 그렇지 않은 교회 56%보다 높았다. 소그룹의 활성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방증이다.

코로나는 3년 반 동안 한국교회의 체질을 변화시켰다. 온라인이라는 백신은 현장 예배의 대체재로 유용했으나 한편으로 예배의 편의성을 확대하고 교회 간의 장벽을 허물어 교회의 공동체성을 약화하고 가나안 성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소그룹’이라는 백신은 코로나로 교회 활동이 위축되던 시기에 교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관계를 지속하게 만들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임상 결과를 만들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소그룹을 교회의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랑과 진실의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으면 소그룹은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형성되어 위기에 도 교회를 지탱해 줄 힘이 될 것이다. 2024년은 크게 앓아누웠던 한국교회가 더욱 단단히 결속해 더 강해진 면역력으로 다시 일어서야 할 한 해이다.